

2024년 6월 18일

하나님의 정의:
한반도 살롱통일을 다시 생각하다

조은석 (금문교회)

머리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를 염려했다. 그중에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그 문제를 푸는데 힘쓰기도 했다. 총칼 없이, 살롱으로 하나 되는 길. 예수님께서서 성경말씀 위에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한국전쟁 74주년 되는 2024년 6월, 우리는 한반도 살롱통일을 다시 생각한다.

몸통

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 세 가지 중 "로고스"를 선택하여 한반도 살롱통일 이론을 설치한다.

클레임(Claim): 주장
리즌(Reason): 이유
워런트(Warrant): 근거

Claim		Reason
	Warrant	

사실 C-R-W는 그보다 천 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미 사용한 이론이었다.

나. 히브리어

히브리어 "미쉬파트"는 우선 "판결"(judgment)이 일차적 의미다. 이차적으로 "정의"(justice)로 번역한다. 하나님을 "재판자"(Judge)로 고백하는 "다니엘"(Daniel)의 이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Judgment of God)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정의"(Justice of God)로 읽는다.

다. 요시야

하나님께서서 한반도를 하나 되기 원하실까?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실천한 요시야는 그 개혁의 결과 중 하나로 남북통일을 얻었다. 주전 622년.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주전 722년) 꼭 100년 되는 해. 1. 통일 이스라엘 열 두 지파가 하나가 되었고, 2. 통일 이스라엘 온 영토가 회복되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세 하나 개혁이었다. 1. 한 하나님, 2. 한 성전, 3. 한 백성. 1은 2를 위한 "근거"(Warrant)다. 2는 3을 위한 "이유"(Reason)다. 3은 "클레임(Claim)"이다.

여기서 "한 백성"은 열두 지파가 다 모이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현실이 되었다. 요시야개혁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북통일"은 "클레임(Claim)"이었다.

<p>클레임(Claim):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다.</p>		<p>리즌(Reason):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다.</p>
	<p>워런트(Warrant): 이스라엘을 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p>	

요시야 개혁의 바탕. 북 이스라엘 멸망 이후 남하한 신앙 엘리트, 그중에 예언자들. 신명기와 신명기 신학. 성전에 숨겨져 있어야 했던 그 말씀을 요시야가 발견하고 그의 옷을 찢었다. 그가 등용한 개혁팀에는 예레미야, 나훔, 그리고 스바냐가 있었다. 예레미야는 창조@출애굽의 "라카프"(창 1:2; 신 32:11)를 "말씀 앞에 선 자의 영적 상태"(렘 23:9)로 풀었다. 요시야는 무조건 선택을 버리고 조건 선택을 취했다. 말씀 앞에 선 자는 누구나 다 떨어야 했다.

라. 키에르케고르

공포와 전율(참고. 빌 2:12).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기록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다. 어떤 정치논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갈 수 없다.

마. 교회

오늘 한반도의 살롬통일을 클레임(Claim)으로 내세우는 "이유"(Reason)는 "하나 되는 교회"다. "하나 되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클레임(Claim), 곧 한반도 살롬통일과 리즌(Reason), 곧 하나 되는 교회가 성립하게 하는 근거다.

바. 시편 133편

다시 묻는다: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하나 되기 원하실까? 그렇다. 하나의 예로, 시편 133편을 클레임(Claim)-리즌(Reason)-워런트(Warrant)로 읽는다.

클레임(Claim):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리즌(Reason):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워런트(Warrant):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하나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성경적 로고스 레토릭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 깨닫기"다. 깨달은 자에게 내리신 사명은 "선포"다.

한반도 분단상황을 두고, 재판자 하나님께서는 "살롬통일"을 판결, 명령하신다. 한반도 살롬통일은 하나님의 정의다.

그러면 "분단상황"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불의"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 사역에 부르심 받았다. 불의를 뒤집어 정의로 바꾸는 사역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강물처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다(아모스 5:24). 사람이 하지 않으면 돌들을 명하여 실시하게

하신다(누가복음 19:40).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15a-b

사. 한반도 살롬통일

한반도 살롬통일은 사람 편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나님 편에서 가능하다. 하나님 편에서 가능한 살롬통일은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당위성"이다. 넓게는, 성도가 가는 모든 길을 당위성으로 풀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을 두 가지로 본다. 1. 한반도가 "하나 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통일," 2. 한반도가 전쟁 없이 모두가 다 윈-윈 하는 "살롬통일"로 나누어 생각한다.

#1은 안 된다. 그 과정이 불행하고, 결과도 선하지 않다. 마치 화목하지 않는 형제를 억지로 한데 모아 둔 형국이다. 재분열은 시간문제다. 그런데도 "모든 통일은 다 좋은가?" 자문하고, "그렇다"고 자답하는 사람이 있다. 통일의 길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로 가는 길에서 적군소탕작전을 수행한다.

#2는 인간에게 판단을 맡기면 현실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육박한다. 토론하면 할수록 결론은 제로에 무한수렴 한다. 결국 하나님께 여쭈다. 하나님께서는 살롬통일을 "명령"하실 것이다. 명령 받은 우리는 "순종"이다. 거기서 살롬통일이 가능성을 획득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클레임)의 배경(이유)은 "창조@출애굽"이다. 창조의 삼단계는 SPR이다. 출애굽의 삼단계도 SPR이다. 창조와 출애굽의 관계는 다이나믹하다. 둘 사이에 "@"를 넣어 표기한다: 창조@출애굽.

아. SPR 살롬통일

살롬은 창조@출애굽 다이나믹스에 구현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다. 창조@출애굽의 공통요소는 SPR.

1. S.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

2. P. 교회가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한다.

2-1. 소금이다. 소금은 화목제물을 완성한다.

2-2. 빛이다. 빛은 어둠을 밝힌다. 이 때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뜻이다.

3. R. 교회는 예배로써 안식해야 한다.

요시야 개혁 때 열두 지파가 모여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교회가 남과 북을 모두 초청하는 예배를 드린다.

자. $SPRx + C@E = A$

Claim: SPRx

Reason: C@E

Warrant: A

차. 누가복음 14:15-24, 큰 잔치 비유 읽기

Outside In, Inside Out.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주인의 잔치를 거절(클레임, Claim)한 자들의 "이유"(리즌, Reason)는 궁색하다. 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겨우 둘러댄 궁여지책이다. 근거(워런트, Warrant)를 들여다보면 분명하다. 그들은 주인과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주인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명령하셨다. 아직도 자리가 있었다. "길과 산을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셨다.

주인의 잔치자리는 예배의 자리다. 예배는 오고 싶지 않은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이유를 둘러대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데 가 있다. 예배의 자리는 "달리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자들"이 와야 한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다. 그리고 "강권함을 받은 자들"이다.

타. 거룩한 교회

교회다.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가 대안이다.

거룩한 교회(S)가 마음이 떠난 자들을 섬기느라 힘쓰는 대신, 교회가 저들의 최선인 자들을 섬기는 중에(P)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 안식하는 것이다(R).

꼬리

나는 1981년 11월, 서부전선 제1사단 철책선에 늘어난 소초에 주특기 100 소총병으로 자대 배치되었다. 철책 너머 임진강이 DMZ였다. 남북 군대의 허락을 받아 주로 야간투망경 하던 목선의 불빛이 40년도 더 지난 지금 생생하다. 이후 연대본부 군중병으로 발탁되어 주로 철책 소초를 방문, 내무반예배를 인도했고, 사단관할 철책선을 따라 경계병들을 만나 커피와 말씀을 나누었다. 철책선 게이트를 열고 DMZ 내부로 진입, 산꼭대기 벙커 GP를 모두 방문했다. 거기서 마주보는 북쪽 GP가 M16 사정거리 이내에 있기도 했다. 이사야와 에스겔을,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펼쳐두고 살롬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을 설교했다.

연대본부 군중과에서 최전선으로 들어오는 전입병을 일일이 면담했고, 연대장에게 보고했다. 예비군복으로 갈아입고 본부대에서 전역대기 하는 전역병 교육도 맡았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행진하는 때로 사오십 명 전역병들을 교회 문 앞에서 말할 때, 가슴이 뭉클했다.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분단의 슬픔으로 살아갈 것이니.

2024년 올해, 나는 예순 넷 늙은이가 되었다. 아직도 허리가 꿇긴 한반도를 전혀 어찌지 못하고, 태평양 건너 샌프란시스코에서 작은 교회 강단을 지키며 높은 하늘 보고 거친 바다 보고 이렇게 지내왔다. 북방한계선에 대량 설치하고 있는 지뢰밭. 서로 다른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남북. 한층 가중된 남-북한 이질성을 보면서 들으면서 나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인간에게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다. 금문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살롬통일 목소리가 자꾸자꾸 약해지는 것은 누구나 겪는 한갓 노년의 현상일까. 여기는 내 능력부재가 아니라 점점 약해지는 믿음이 문제다.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아멘신앙이라면, 나는 내 생애에 한반도 살롬-통일을 보기는 할 것인가!

수십 마리 토끼를 기르며, 토끼농장을 꿈꾸던 시골소년에게, 나와 나 같은 또래 시골 아이들에게, 함석헌, 장준하, 계훈제, 박종관 같은 인재들이 교육자로 나섰다. 학교에서 나는 세계 속의 한반도를 배웠다. 1974년 10월, 구화고등공민학교에서 "모산야우"를 쓸 때 함석헌 선생은 73세 노인. 나는 14세 그 학교 3학년이었다. 성경의 눈으로 한반도를 읽던

그의 토요강의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분단의 슬픔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살았던 목회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나는 가정에서 지워야 할 부정가치로 분단을 인식했다. 교회는 샬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다.

노만 갓월드와 BS 차일즈의 기념비 저서가 세상에 빛을 본 1979년부터 시작한 신학공부 중에 2002년, 마침내 나는 한반도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었다. 조금씩 세상과 역사,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눈을 뜨던 나는 마침내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었다. 성경말씀 앞에서 샘물이 터져 오르고 있었다.

개울물은 가능성의 통로를 따라 흐른다. 그러나 모든 휘몰아치는 강물을 하나로 끌어모아 이루어내는 그 샬롬의 바다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거역할 수 없는 그것은, 내가 우리가 여태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 은혜의 자리에서, 소망의 닻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다.

된다. 샬롬통일은 된다.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여기는 우리에게 오는 아름다운 소망이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 위로.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샬롬통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떨어지는 감”과 사뭇 다른 것은, 다르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 우리 샬롬통일은 믿는 자의 행동으로서 기다림이다.

오늘 노년이 겪는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붙들린 어떤 작은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나는 한반도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선물, 샬롬통일을 말한다.

참고

조은석, 책임편집
2021 샬롬 한반도. 서울: 동연.

함석헌
1974 “모산야우.” 3-11 페이지. 씨알의 소리. 1974년 10월호.

Childs, Brevard S.
1979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Cho, Eun Suk
2002a “Josianic Reform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Reconstructed in the Light of Factionalism and Use of Royal Apology.” GTU PhD Dissertation.
2002b Josianic Reform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Reconstructed in the Light of Factionalism and Use of Royal Apology.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Gottwald, Norman
1979 The Tribes of YHWH. A Sociology of the Religion of Liberated Israel, 1250-1050 BCE. Orbis Books.

Kierkegaard, S.
1983 Fear and Trembling/Repetition. Edited and Translated by H.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U Press.